

바흐에서 로이브케로 이어지는 독일 오르간 음악 탐구

## 헬무트 도이치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

### 오르가니스트, 바흐와 로이브케의 오르간 작품 연주

오르가니스트 헬무트 도이치(Helmut Deutsch)가 9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이홀에서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을 연다. 아주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다. 헬무트 도이치는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연주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12세에 독일의 작곡원로 지방 회의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오르간을 피아노처럼 쳤어요. 잘 대답하지 못해서 종종 찬송 반주는 불완전하고 원손으로 묵혀줘야 하기도 했죠. 그러자 그때 제사당 신부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전문 오르간 레슨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조언을 하셨고, 그 이후 오르간이 저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헌에서 헬무트 도이치는 모차르트, J.S. 바흐, 로이브케의 곡을 중심으로 오르간의 다양한 해석을 펼친다. 연주회 전만 해도 모차르트가 당시 유행했던 거대한 저음 오르간을 위해 작곡한 <환상곡 1번조, K.395>을 들려준다. 또 다양한 변형의 음악을 오르간 곡으로 관주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온 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술라> 중 아리아인 수많은 군중을 끌어내고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오르간 곡으로 직접 관주하여 연주한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1번조, K.395>은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의 첫 부분인 사주와 주가는 어두운 7단조에 비록다가 부끄러운 안락해로 변주에 이어 다시 7단조로 돌아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후렴구에서는 어둠 주기와 길 30개가 펼쳐지고 단조하게 어둠을 흐르며, 이 길은 바흐의 환이만 대위법, 그리고 모차르트의 <문 조반 나사 (아술라)>같은 오페라의 극적 표현과 잘 어울립니다. 수많은 군중을 끌어내고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오페라 <아술라> 안에서 바흐의 알토리로 존 합창되었습니다. 대위법 정신을 노래하고 싶을 때 문 앞에서 두 모차르트가 거락을 부르죠." 4부의 열정적 대위법을 행악가가 연주합니다. 오르간으로 저기에 이상적인 곡으로서, 마치 교향 편주적인 듯 생애 오르간 작품처럼 들려주세요."

이제 헬무트 도이치가 연주할 곡은 독일 바로크 오르간 음악을 완성한 J.S. 바흐가 라이프치히 시절에 작곡한 25개의 라이프치히 3요 중 <오 사랑하는 영혼아, 자신을 가꾸어라, BWV 654>과 <피사알리아 2번조, BWV 582>이다.

"<피사알리아 2번조, BWV 582>는 형식, 대위법과 비르투오스 연주에 기쁨에 대한 위대한 직관을 가졌던 바흐가 약 23세에 지은 곡으로, 모든 오르간 작품을 중 최고 등급에 속합니다. 21개의 변주와 주가가 이 곡의 핵심이며 지속적으로 나오는 주제 뒤에 펼쳐지는 놀랍도록 세련된 작품이에요. <오 사랑하는 영혼아, 자신을 가꾸어라, BWV 654>는 바흐의 3요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개인적인 곡 중 하나로, 모체르트 승인과 더불어 이 곡을 매우 사랑했던 멘델스존이 누군가 모든 것을 잃었다 했을지라도 큰 위로를 주는 곡이라고 말했던 작품입니다."

연주회의 마지막 곡으로 헬무트 도이치는 리스트의 제자이자 24세의 젊은 생애를 살았으나 낭만 오르간 음악의 걸작을 남긴 로이브케의 <소나타 2번조 '지연 94번'>을 연주한다. 이 곡은 음악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이브케가 시편 가사를 통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 놓은 곡이다.

"로이브케의 <소나타 2번조 '지연 94번'>은 제 생각으로는 리스트의 <에트 노스> 환상곡과 주가와 멘델스존의 오르간 소나타들과 함께 독일 낭만주의 작품들 중 최상급에 속합니다. 1850년부터 독일의 오르간 음악 작곡과 악기 제작에 대하여 알려졌는데, 오르가니스트의 교육을 받은 로이브케는 파이프오르간 리스틀보다 오르간의 가능성에 대해 더 잘 알았습니다. 이 소나타의 기본 음악은 기본적으로 희망이 없는 '검은색'으로, 23개의 짧은 절제된 소가 큰 차이를 가지고 단호한 성격의 작품입니다. 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들 중 한 명이고 성격도 온순했던 그가 이러한 작품을 쓴 것은 혹시 이해했던 24세에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오르간의 레지스트레이션과 종교 음악

파이프오르간 연주에서는 연타기, 관악기, 저음의 소리 등 수십 종류의 음색을 담은 스텝을 작품이 각 부분마다 고르고 뒤는 과

장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북스테후데, 바흐, 멘델스존 등 독일 작곡가들은 레지스트레이션 지시를 비교적 적게 했고, 프랑스, 위도르, 베시앙 등 프랑스 계열 작곡가들은 매우 자세하게 지시를 남겼다. 그러므로 악기의 조건, 연주자의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같은 곡을 연주해도 매우 다른 소리가 나게 된다. 작품이 다른 분위기와 소리로 변하는 부분마다 연주자의 생각과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르가니스트는 희극처럼 음색을 살아야 합니다. 꼭 저자야 하는 지점도 있지만, 모든 오르간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많은 주의와 경험, 원형과 소리 조절이 필요한 오르간 연주에서 레지스트레이션 자체에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오르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오르간은 다시 찾아서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거에 유럽 역사에서 교회는 서양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지금 시에는 종교나 교회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오르간을 포함한 음악 연주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헬무트 도이치는 오르간 음악과 종교 음악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르간 음악과 교회, 성악 음악이 어울림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가 교회가 모두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흐가 죽고 나흘째를 시대 이후 재발견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후 19세기 중반에는 오르간 음악으로 저 종이 큰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에 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멘델스존, 리스트, 레기, 프랑크, 위도르, 바에른, 베시앙, 클로렌 소크 이러한 대항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한 음악과 그에 대한 해석이 보존된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듯이 지속하고 찬미한 음악은 역사에 남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헬무트 도이치는 이번 연주회에서 곡에 대한 해설도 함께 한다. 이화여자 김영이홀에서 파이프오르간으로 그가 만들어낸 오르간의 무궁무진한 소리가 기대된다.

글·김민기



© KIMMINGI



© KIMMINGI

201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는 파이프오르간 페스티벌(Pipe Organ Festival at Ewha)을 주최하고 있다. 해외 유명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를 초청하여 공연 및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 올해의 연주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악대 교수인 오르가니스트 헬무트 도이치(Helmut Deutsch) 교수이다.